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천지개벽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문이 열렸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천지개벽이 되었다. 천지개벽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늘이 땅 되고 땅이 하늘 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이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2시간의 회담을 마치고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린 국민들이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 컨택스에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취재 중이던 내외신 기자들도 감격의 물결에 젖었다. 전 세계가 감동과 찬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전 세계인에 대한 큰 선물이었다. 이것은 한반도의 천지개벽이요, 동북아시아의 천지개벽이다.

대결과 전쟁의 상징이었던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에서 남북 정상이 악수하고 손잡고 남측으로 왔다가 다시 북측으로 건너갔다. 남측으로 걸어오는 모습은 과거를 넘어서 충격이었다. 다른 곳도 아닌 군사분계선에서 만나고 악수하는 장면은 그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의미와 상징을 민족과 전 세계에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군사분계선은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오전 회담을 마치고 남측은 평화의 집에서, 북측은 판문각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도보다리를 단 돌이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도보다리 끝에 마련된 원탁에서 30분 단독회담을 가졌다. 배석지도 기지도 없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둘이서 나눈 대화는 흐르는 물과 풀과 나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만 들었을 것이다. 평화의집에서 들어서 대화를 나누었다면 보았을 어려울 수도 있다. 참으로 파격적이고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백 마리씩 두 차례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길에 1963년생 소나무에 문 대통령은 백두산 흙을 주고 김 위원장은 한강 물을 주어서 기념 식수했다. 표지석에 '평화와 번영을 삼다.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을 새겼다.

만찬에는 김정은 여사와 리철주 여사도 참석하여 판문점 회담은 절정을 이루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전 비서실장도 참석해서 북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평양에서 가져온 평양냉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의 민어와 해삼초를 이용한 '민어 해삼편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 마을에서 오리농법 쌀로 지은 밥, 정주영 회장이 방북 당시 소떼를 몰고 올라간 층남 서산 복장의 한우를 이용해 만든 '숯불구이', 윤이상 작곡가의 고향인 남해 통영바다의 문어로 만든 냉채 도 만찬에 올랐다.

내가 주목한 몇 가지를 들어 보겠다. 두 정상이 남북 수행원들과 인사할 때, 남한의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경례(인사)하지 않고 악수만 했으나, 북한의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은 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고 악수했다. 이번 회담도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바치겠습니까?'로 당 공식 구호를 정했다. 만약 반대로 북한의 두 군부 대표자가 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지 않고 송영무 등 합참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경례를 했다면 '우리 국군을 김 위원장에게 갖다 바쳤다'고 하면서 두 사람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경제나 인구 등 종합적인 국력에서 40배 이상의 우리가 더욱 포용적이고 관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북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고 악수하고 회담하고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여사들까지 만찬에 참석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 국민들이 많았다.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서훈 국정원장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다. 1926년부터 남북 북녘에서 애창되고 지금도 애창되는 '고향의 봄'을 제주도 출신의 오연준 군이 부를 땀 김여정 부부장 등 따라서 부르는 이들도 많았다.

현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다. 현실이 소설 보다 더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고 파격적일 수 있다. 현실이 영화 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두 정상이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어린 아이들이 줄넘기 하듯이 웃으면서 왔다 갔다 할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중·일·소 등 4강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남북화에 국내·외의 모든 관심과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나는 소설 같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비핵화하지 않고 남북 간, 북미 간, 북일 간에 화해 협력하고 대사(大使)를 상호 교환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각급 대화와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어서 '핵 있는 통일'이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은 경제 강국에 군사 강국까지 되어서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민주선진강국이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금방 미국과 한국을 공격하여 전쟁이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체제 보장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개발한 수단이다. 핵무기 사용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전멸하는 최후·최후의 수단이다.

社說

장애학생 배려 돈보이는 정책

정부가 부처별로 나누어 있던 장애학생 취업 지원 정책을 연계해 학생들의 취업문을 넓히기로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와 국립특수교육원 등 3개 기관은 최근 장애학생 직업교육·고용지원 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그간 추진했던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가운데 유사한 사업을 기관 특성에 맞게 전문화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부는 특수학교 전공과(장애학생이 진로·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와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를 하는 특수학교를 지난해 120곳에서 올해 164곳 전체로 확대하고, 중학교 과정부터 진로체험기회를 늘린다.

2020년부터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184개 특수학교에 진로진단교사를 차례로 배치해 학생들의 진로·직업 선택을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종종 장애학생들도 일자리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점검하는 '직업평가'를 강화하고,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를 올해 7곳에서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늘리고, 다양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보유한 장애학생 이력관리 시스템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장애학생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중학교 진로체험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일자리 찾기가 수월해지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孝 효도  
當 미망  
竭 다할  
力 힘

孝當竭力

▷ 뜻: 부모(父母)를 섬길 때에는 마땅히 힘을 다하여야 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고 숙지하자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달라진 몇 가지 내용을 알아보자. 첫 번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좌석은 제외)

두 번째, 자전거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음주(0.05% 이상)를 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

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를 운전 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할 의무(위반 시 처벌 규정 없음)가 있고, 원동기장치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도통행이 금지(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된다.

세 번째, 교통법칙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법칙금·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네 번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단축(5년→3년) 되고, 취득·갱신 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를 할 때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러진 사고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287명, 나주시는 3명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에는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되기를 원하며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몰라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박춘섭 / 나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湖南新聞 本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김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